

## 최고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한 해로

(주) 대우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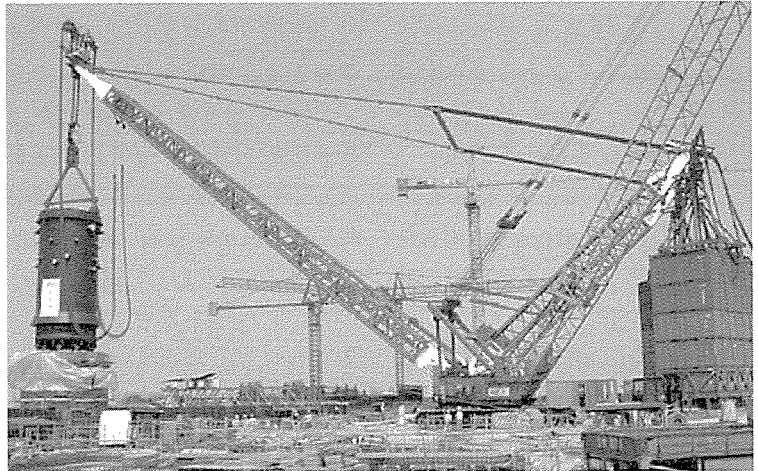
지난 2005년 대우건설은 전 분야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사상 최고의 경영 성과를 이룩한 기념비적인 한해였다.

특히 해외 사업 분야에서 원유가 상승으로 중동 국가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발전 및 Gas 정제 설비 수주가 활발하여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였다.

전년도 경영 실적을 살펴보면, 수주가 7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 성장되었으며,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조1천억원, 영업 이익은 20.8% 증가한 5,900억 원이다.

###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

금년에도 회사는 「최고의 기업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하에 가치 경영 / 열린 경영 / 인재 경영의 경영 방침과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



대만 용문 원전 원자로 반입 전경. (주)대우건설은 일찍이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한 국내 최초의 건설 회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고 금년 한해도 이를 바탕으로 해외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이다.

8.31 대책조치 및 후속 입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전망이고, 유가 및 환율 등의 위험 요인이 상존하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 의식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새해에는 회사로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05년 한해를 뒤돌아 볼 때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최대 숙원이었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후보 부지가 지역 주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정되었다.

남은 과제로는 후보지 유치 과정에서 발생된 지역내 및 지역간의 갈

등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회사로서는 계약 후 2년이 넘게 착공이 지연 되었던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의 실시 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부지 정지 공사 착수에 앞서 안전기원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

금년에는 공사에 임하는 모든 관련사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월성 1,2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의 성공적 수행

전년도 말 초저온 증류탑(CDCB : Cryogenic Distillation Cold Box)을 성공적으로 반입 설치하여 시운전중에 있는 월성 원전 삼중수소 제거 설비 공사는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플랜트로서 원자력 발전의 신뢰와 안전성을 한층 더 증대시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동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원자력의 비발전 분야 진출의 일환으로 시공하고 있는 한국



신월성 1, 2호기 주설비 공사 안전기원제. (주)대우건설은 상업 운전중인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에도 월성 3,4호기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하는 등 금년 한해는 신규 원자력 사업 진출 확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선 조사 연구 시설 또한 성공적으로 준공시켜, 이러한 원자력 관련 첨단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유사 공사와 후속 공사 수주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지난해 실시 계획 승인 이후 초기 토목 공사가 진행중인 신월성 1,2호기는 금년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한층 바쁜 한해가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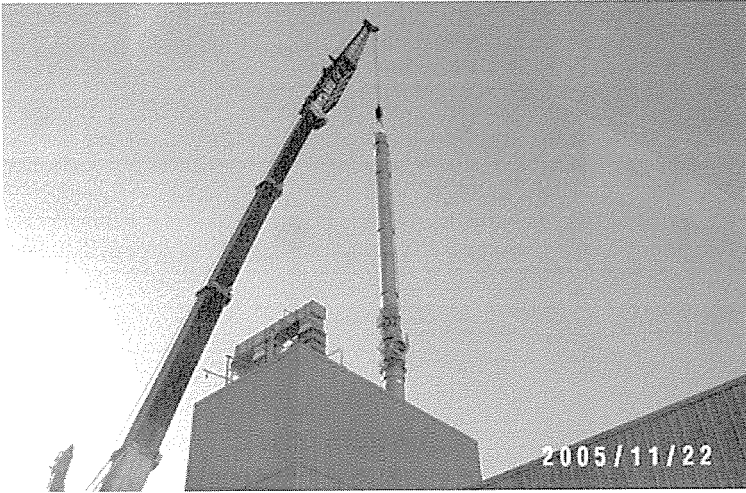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최초로 적용되는 심층 취·배수 침매함 제작 설치는 대우건설이 통영 LNG 현장에서 시공한 경험을 갖고 있어 회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부지 정지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공정을 살펴보면 벌목, 벌개제근 및 표토 제거 작업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완벽시공을 통하여 신월성 1,2호기의 성공적인 준공을 기약하는 첫 해로 기억 될 것이다.

### 신규 원자력 사업으로의 진출 확대

대우건설의 원전 시장 참여 역사는 짧지만 회사로서는 월성 3,4호기 주설비 공사의 수주 전부터 원전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



월성원전 삼중수소 제거 설비. 국내 최고의 건설 회사로 자리매김한 (주)대우건설은 성공적인 M&A를 통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건설 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왔으며, 이는 곧 월성 3,4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현재도 대만 용문 원전 건설 현장에 회사의 우수한 엔지니어가 파견되어 토목 및 기계 분야에서 기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 인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발주 예정인 신형원자로 APR-1400으로 건설되는 신고리 3,4호기 주설비 공사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한 최근 부지가 선정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도 신월성 1,2호기 인근에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중에 있는 중·소형 원자로인

일체형원자로(SMART) 건설 타당성 조사에도 시공사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성능 실증을 위한 연구로 건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및 특수 지역에 담수화 플랜트와 Package로 수출할 경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업 운전중인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에도 월성 3,4호기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하는 등 금년 한해는 신규 원자력 사업 진출 확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의 선도적 역할

대우건설은 일찍이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한 국내 최초의 건설 회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고 금년 한해도 이를 바탕으로 해외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현재 수행중인 대만 용문 1,350 MW급 원전 건설에 기술 용역 제공의 지속적 수행과 최근 신규 원전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시장 및 루마니아 등에 진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원전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사들과 공동 수행중인 원전 건설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SMART 도입을 위한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도 공동 수행으로 참여하고 있다.

#### 맺음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2006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해가 될 듯 하다.

회사는 국내외 원자력 사업의 참여를 통해, 작게는 회사에 기여하고, 크게는 국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공기내 준공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국내 최고의 건설 회사로 자리매김한 회사는 성공적인 M&A를 통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건설 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